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 성남일보

snilbo.co.kr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두리인력파출부

www.dooryjob.com

1566-8814

제47호 | 발행일 : 2013년 9월 25일~10월 2일

기사제보 · 광고문의 031-721-9922 팩스 031-721-9921



## “시민 참여가 지방자치 혁신 이끈다”

오세응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

### - 주요 프로필

- 전 정무장관
- 전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 전 The American Univ. 석좌교수
- (사)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
- 성남시 원로회의 의장

### 명사초청 강연회

## 지방자치제도 이대로 좋은가?

유난히 더웠던 무더위도 기세가 꺾여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2월 결성된 (사)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상임대표 오세응)이 ‘지방자치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명사 초청 강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사 : 김의재 전 국회의원 /전 서울시 부시장
  - 현직 시의원의 경험담 -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원(민주당)
- 오세응 (사)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와의 질의 응답

-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
- 주최 : 사단법인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 후원 : 경기도
- 문의 : 031 - 715 - 4638

# “성남시 일방 행정 막겠다”

## 성남시민협, 23개 시민사회단체 모여 ‘출범’

‘성남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시민단체로서 부여된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협의회를 결성, 진정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성남에서 활동중인 성남시민연합, 성남시민포럼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0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약칭 성남시민협) 출범식을 가졌다.

성남시민협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집단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성남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이번 ‘성남시민협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선택을 통해 성남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남바로세우기’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협은 “마음속에 간직한 양심으로 외치는 구호만으로는 지금의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차고,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각인된 성남을 바꿀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



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동단결해 양심에 바탕을 둔 행동으로 나설 때만이 올바른 성남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성남시민협은 앞으로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며,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각종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벌여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민협은 민선5기 성남시정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토론회 개최 등 모라토리엄 논란과 같은 지역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백서 발간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 주목된다.

최인식 공동대표는 “요즘 같이 종북논란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종북의 근거지라는 불명예를 안

고 있는 성남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성남시민협은 지역사회가 특정 정치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의 위임자이자 주인인 성남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성남 건설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긍지와 애항심을 가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성남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지방정치권력에 대한 파수꾼이자 감시자 역할을 선언한 성남시민협에 참여한 단체들은 성남시민연합을 비롯해 국민행동성남본부, 성남시민포럼 등 모두 23개에 달하며, 성남지역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시민사회단체들이어서 향후 성남시민협의 활동이 주목된다.



## 성남 하이테크밸리 발전 모색

### 준공 40년 기념 토론회… “지역발전 원동력”

경공업 제조업체 위주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던 성남하이테크밸리(성남산업단지)가 준공 40주년을 맞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 대안모색에 나섰다.

성남창조경영 CEO포럼(공동의장 김달수 티엘아이 대표)과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윤용건, 이하 산단공)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성남시의회 유근주 경제환경위원장과 지관근 의원, 포럼 회원과 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산단공 윤용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조경제의 지향점은 강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에 있다”며 “하이테크밸리야말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최강의 견인차이며 입주

기업 임직원 모두가 그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의장인 김달수 대표는 인사말에서 “저도 성남에서 기업 활동을 한 지 10년이 되었고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하이테크밸리의 40년 변화와 성장을 알고 보니 하이테크밸리의 ‘오늘’을 만들어 온 많은 분들의 노고가 새삼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기조발제가 끝난 후 윤용건 산단공 이사장이 사회자로 나서 국토연구원 장철순 연구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정종식 연구위원, 천지열 성남시 기업SOS 팀장, 김선아 (주)아마로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하이테크밸리의 발전적 비전 마련’이라는 주제의 패널토의와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전체토의가 진행됐다.

## 광주 참사랑푸드뱅크 추석맞이 열린음악회

광주시 참사랑푸드뱅크는 지난 12일 저녁 청석공원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푸드뱅크 이용대상자 및 광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음악회를 개

최했다. 씨알여성회원의 베트남 노래와 춤, 브라스 밴드의 연주, 어린이 합창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참사랑 푸드뱅크 박병근 대표는 이번 열린음악회를 통해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 2014학년 신입생(고 1 과정) 입학 설명회

공부, 입시로 걱정되는 학생들 시원하게 해결책 찾자!

반복·암기형 공부·입시에서 벗어나 주어진 잠재력을 개발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30~40년 경력의 경륜 있는 교사들이 힘을 모아 ‘실로암학교’를 운영합니다.

### 0 실로암 학교

전·현직 서울 강남 대성,종로학원에서 오래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명강사들이 참여해 명문대학 입학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24년간 미국 대학에서 부총장을 지내신 박희성 박사님이 미국 유학팀을 지도합니다. 1년이면 영어 원서와 영어신문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합니다.

실로암학교는 그동안 고교 내신 7등급인 함모군을 2년반 과정의 교과과정을 통해 한양대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했으며 문모군은 하버드대학 수석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교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참석 대상 : 중 2 이상, 고교 중퇴 학생과 학부모
- 모집 인원 : 50명 이내
- 장소 : 실로암학교 강당/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9-4 광장빌딩 5층
- 일시 : 2013년 10월 19일(토요일) 오후 2시 ~4시
- 전화 : 031-605-7888

(사)실로암 부설 / 실로암 학교

파워인터뷰 오세응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

#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자치제 개선 시급하다”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 극복 시급... 9월 30일 토론회서 입장 밝힐 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모여 (사)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을 만들어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세응 전 국회의장(81)은 지난 2011년 출범한 지방자치제도개선모임 상임대표를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 전 부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와 단절하고 운동하면서 집에서 조용히 지냈죠.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책 한 권을 출판하기 위해 공부를 하면서 또 심심하면 TV 연속극이나 보면서 지냈죠.  
그렇게 10년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가끔 만나면서 분당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에 전직 국회의원들이 90여명 살기 때문에 그분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에 반해 예산이 부족한데도 외상으로 3500억원의 사치건물을 짓고 판교의 시의원은 동사무소의 20대 어린 직원이 자기를 알아 보지 못한다고 행패를 부려 그가 속해있던 진보당에서 그를 출당시켰는데 성남시의회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편의 의원이 필요해서 6개월 이상을 제적을 미루다가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고 서야 시의회에서 제명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시의회를 오랫동안 마비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리고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때문에 시민의 얼굴을 찌프리는 일이 많았다. 또 용인시에서도 3500억원을 들여 호화 시청건물을 짓는가 하면 무모한 경전철 때문에 세금을 1조원 가까이 낭비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시의원이 백화점에 들어가 목도리를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고도 일어났다.

▶▶ 지방자치제의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를 든다면.

지난 18년간 실시한 지방자치제를 분석한 결과 자치제가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중앙정치의 폐해인 망국적인 두 가지의 암적 조건, 즉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를 지방구석구석까지 전염 시킨 것이다. ‘패거리정치’와 ‘부정부패’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적 요소다. 기초단체 시장이나 시의원이 위만 쳐다보는 여러 가지 조건을 차단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와 정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한 이유는.

이러한 고민을 하던중 지난 2011년 3월 일본 나고야시에서 지방당인 ‘감세일본당’을 만들고 크게 성공했다는 보도를 보고 전직 의원 4명(이운수, 김의제, 신명, 오세응)이 함께 나고야를 방문해 연구도 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12월 12일 성남시와 용인시에 거주하는 전직 의원들이 모여 ‘지방자치제도개선 모임’을 만들었다. 그 모임에서 헌정회 원로위원인 제가 상임대표가 되었다.

▶▶ 일본의 지방자치현황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지난 2011년 3월 중앙당의 공천을 반대하고 지방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고 시장과 시의원의 봉급도 반 이상 줄이고 나고야시를 위한 예산절약을 연구해 10% 세금을 줄이는 공약을 세우고 선거를 치렀는데 중앙의 제1, 제2, 제3의 정당공천후보를 다 뿌리치고 65% 이상의 득표로 크게 승리했다.

2013년 후반까지도 ‘감세일본당’은 건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일본을 다녀와서 ‘헌정’지에 나고야 방문기를 썼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 실정과 나고야 실정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나고야보다 개혁의 성공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는 1)우리의 실정이 일본보다 더 부패했고 시민의 비난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과 2) 나고야는 조직책임자인 가와무라 시장이 개인 출세를 위해 행동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는 조직책임자인 저는 81세에 아무 욕심 없이 과거의 책임을 느끼면서 봉사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나쁜 조건은 가와무라 시장은 자기의 현존하는 시의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해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건에서 노력하는 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조직도 없고 재정후원도 없는 봉사로 일하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들이 강력하게 뭉치면 더욱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앞장선 이유가 있다면.

지방자치제가 너무 잘못 가

는 것이 안타까워 저의 경험과 전공분야인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유권자가 먼저 잘못된 현실을 잘 이해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일을 많이 했다.

세미나도 하고 신문에 인터뷰도 하고, 최근 분당구 서현동에 범죄인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주변의 학부모들이 데모를 하여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

법무부도 그렇지 왜 그런 시설을 분당에서 가장 복잡하고 땅값이 비싼 서현동 한가운데로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우리시의 지방정부를 개선하는 것도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잘못 들어 온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의 개선모임은 길에 나가 데모할 필요도 없고 개선모임에 참여만 하면 해결 할 수 있다.

우리 지방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유명한 국제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10등 안에 드는 우리나라가 부패 정도는 항상 45번째쯤 된다. OECD 32개국 가운데 27째로 문명국가 가운데는 꼴찌에 가깝다.

최근 미 8군사령관이던 필 중장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150만원 짜리 만년필과 200만원 짜리 가방을 선물했는데 그가 귀국하여 육군과 검찰기관의 조사를 받고 소장으로 강등되어 제대했다. 미국에서는 정부 직원이 2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금전수수 문화는 빨리 고쳐져야 한다.

(4면에 계속)



인사말을 하고 있는 오세응 상임대표.



나고야시를 방문한 한국 총영사, 김의제 전의원, 가와무라 오사카시장, 오세응·이운수·신명 전 의원. (오른쪽부터)

#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동부연합 지원 의혹 밝혀라

## 성남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 기자회견, 공개질의... “검찰 고발 등 진상규명 할 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로 성남시가 전국적 뉴스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성남시가 경기동부연합 중복세력의 근거지로 연일 매스컴에 오르 내리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뒤 공동시정을 펼치겠



다고 한바 있다”면서 “이 약속을 지키듯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김미희 의원(당시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10명 안

팍을 대거 인수위원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들은 이후 시 본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특혜의혹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에 포진해 있다”면서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인 RO의 비밀 회합 장소로 거론된 ‘킨스타워’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유 공공시설”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한 이재명 시장에게 성남시가 중복세력의 근거지라는 것에 대한 해명, 언론에서 성남시가 중복세력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한 해명, 인수위원 전원 시 산하기관 취업 현황, 당시 인수위원 성남시 관련 업체의 취업현황과 지원금액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직접 검증에 나서고 검찰고발,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3면에 이어)

▶▶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모임인 후도 공천도 하는지요.

아주 어렵고 예민한 질문이지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임원들에게 많은 가상 후보들이 접촉을 해왔는데 나는 확실히 답변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만일 많은 시민들이 우리 개혁모임의 뜻에 동의해 주면 따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개혁모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될 거예요.

인격적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는 몹시 어렵지요.

그런데 나는 앞서 대한민국 의 양심적인 인사들이 동의할 김영란 전 대법관이 성남주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에게 부탁할 예정입니다.

는 아직 그와 만나본 일도 없지만 그는 자기가 사는 성남시의 자랑스러운 개혁운동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개혁모임 후보들은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 부패방지법’의 원안대로 성공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지난 2012년 입법 예고한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법무부의 반대로 총리실에서 조정을 한 안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지위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 분쟁의 핵심인 대가성이 있다 없다는 논쟁과 직무관련성이 있다 없다는 도망갈 여지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동 방지법이 희석 되었다는 비난이 많다.

우리 개혁모임은 우리의 부

정부패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김영란 부패방지법’이 좀 심하다는 말은 있지만 극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선모임도 후보를 내세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후보에게는 관공비는 얼마나 받을지, 인사위원회 구성은 공정히 할지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개선모임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한누리관에서 ‘명사초청 강연회’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대안을 모색하

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남은 9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동조하는 회원이 부족하면 시민계몽운동 했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지금까지 나라일을 한일 중 가장 멋진 일을 했다고 기록되겠지요.

그리고 내년 6월 선거후에는 82살을 끝으로 개선모임에서 손을 떼고 편안히 지낼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소망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담 : 모동희 기자]

## 2014학년 신입생 입학 설명회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는 아이들 다 모여라!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며, 자연속에서 책을 벗삼아 마음을 키우는 성문밖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참석대상 : 초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 중학교 졸업예정학생, 학부모
-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후 2시
- 대 상 : (중1 과정/고1 과정)
-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238-2번지 성문밖학교
- 문 의 : 학교 교무실 : 070-4251-7070  
담당자 : 010-3340-1735
- 홈페이지 : www.smbschool.kr
- 이메일 : smbsschool@hanmail.net

### ★ 학교 소개

성문밖학교는 기숙형 중등대안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도립공원내에 있으며, 산과 넓은 들녘, 냇가를 두르고 있어, 사시사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른말 사용과 예의를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체능 활동이 활발하여,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활동은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사회의식과 능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힘으로 크는 작은학교, 성문밖학교!!



# 성남FC 인수해 시민구단 창단하라

## 성남시민축구단 창단 축구 범대위 규탄 집회... “시장 퇴진운동도 불사”

성남FC의 안산시 매각설이 불거진 가운데 성남지역 축구인들이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성남시민축구단 창단을 촉구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성남시민축구단 창단촉구범시민결기대회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성남시의회 1층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날 집회에서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성남FC 축구단은 성남시민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이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성장했으며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용기있는 결단력으로 빠른 시일내에 성남FC를 인수해 성남시민구단으로 재 창단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남FC 축구단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



고 성남시민에게 프로축구단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면서 “대책위는 축구발전에 어떠한 저해가 되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결의문

을 통해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 시민들은 위와 같은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반약이를 거부할 경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자 모든 분들에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민포럼 제7기 출범

## 안영두 상임대표 취임, 시민참여문화 선도

성남시민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제7기 출범식 및 상임대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창립한 성남시민포럼은 그동안 성남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약20회 개최했고, 성남의 인물찾기와 지역현안 토론회에 대해 약 20여회 진행해 왔으며, 포럼인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활동도 지속시켜 왔다.

제7기 출범식에 따른 포럼 운영을 맡게 될, 안영두 상임대표는 ‘성남시민의 삶과 공

감하는 시민참여문화선도’라는 모토를 갖고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출범한 성남시민포럼의 주요 임원진은 (주)사가스 포트 대표인 안영두 상임대표를 비롯해 공동대표 5인에는 유길수 그린나래 대표, 조규상 부모사랑상조 성남지회장, 홍진표 법무사, 임승룡 세급바로 쓰기운동 본부장, 김영문 쉼보레 성남수정점 대표며, 그의 주요 임원진의 직책으로는 상임위원과 자문위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4개 국장단과 18개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했다.



# 성남일화 자금난 속 매각 ‘진통’

## 안산시와 매각 추진... 성남시 “성남일화 인수 어렵다”

안산시가 지난 2000년 3월 성남시를 연고지로 출발한 성남일화를 인수하겠다는 계획이 공론화 되면서 지역 축구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성남일화는 그동안 구단에 전폭적 지원을 해왔던 통일그룹이 자생의 길을 찾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올해들어 성남시와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성남시가 지난 7월 성남일화 인수나 시민구단 창단 계획과 관련, 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올해안으로 구단의 행보를 결정해야 하는 성남일화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성남일화는 성남일화 인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안산시와 성남일화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정철수 성남일화 사무국장은 “안산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성남시도 성남일화 인수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성남일화 박규남 단장도 지난 24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의 경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성남이라는 이름만은 살리고 싶어서 성남시와 접촉했지만 안됐다”면서 “왜 안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산시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연간 100억원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라고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 분당제생병원, 27일까지 신규 성인자원봉사자 모집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성인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활동은 ▲외래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 봉사 등이다. 모집대상은 월~금요일 중 주1회,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가능한 만20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이다. 문의 : ☎ 031) 779-0957

**제27회 성남 문화예술제**

2013. 9.27 Fri - 29 Sun  
성남시청 특별무대

9.27 Fri PM 06:00 개회식 PM 07:00 공연	9.28 Sat AM 11:00 공연 PM 01:00 공연 PM 03:00 공연 PM 05:00 공연	9.29 Sun PM 01:00 공연 PM 03:00 공연 PM 05:00 공연
---	--	---

##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출범 선언문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체가 시행중이지만 작금의 성남지역 현실은 어떨습니까.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이 과연 진정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을 정도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민선5기가 시작된 2010년 이후 3년여가 흐른 지금의 성남 현실은 어떨습니까. 오히려 예전의 성남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대화합과 상생을 통해 성남발전에 앞장서야 할 정치세력들은 겉으로는 시민이 주인이라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건설하겠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이중성을 보임으로써 개탄스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통합도 모자라는 판에 시민들의 편을 가르고 줄을 세워 분열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성남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반역사적인 정치세력들에게 쓴소리를 통해 올바른 통합의 길을 가도록 비판과 감시를 해야 할 시민단체들은 지금 성남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권 정치세력들을 옹호하는 홍위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성남시민협)은 오늘 ‘성남시민협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선택을 통해 성남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남에서 활동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남바로세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체 성격으로 거듭 태어나는 성남시민

사회단체협의회(성남시민협)은 앞으로 성남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단체가 실종되었다는 부끄러운 지적을 받아온 성남사회에서 앞으로 성남시민협은 오로지 시민들만 쳐다보며,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울골은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치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자 및 감시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성남지역사회가 특정 정치세력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방자치 권력의 위임자이자 주인인 성남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성남 건설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긍지와 애郷심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성남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 간직하신 양심으로 외치는 구호만으로는 지금의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차고,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각인되고 점철된 성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인 100만 시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동단결해 양심에 바탕을 둔 행동으로 나설 때만이 올바른 성남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협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할 가시밭길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성남시민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희망의 길을 만드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대장정에 성남시민협이 선도자이자 견인차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2013. 8. 30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참여단체 일동

# 김미희 의원, RO 국내 총책 보도 '반발'

##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기사” 해당 언론사 검찰 고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4.11총선에서 야권연대로 당선된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 성남 중원)이 'RO 국내 총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미희 의원 보도와 관련, 서울신문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서울신문 2013년 9월 10일자 ‘김미희 의원도 RO 국내 총책’, ‘김미희, 정국 흔들 ‘히든카드’ 될 듯’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며 “위 기사는 김미희 의원이 마치 ‘이른바 지하 비밀조직’이라는 RO의 총책인 것처럼, 나아가 ‘북한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처럼’ 게재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들도 서울신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신문 불매운동 등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던져준 정보를 특종삼아 흔드는 모든 언론사와 기자를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상을 받아 낼 것”이라며 “대선개입 국정원 해체와 김미희 의원 지키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신문은 지난 10일 ‘김미희 의원도 RO 국내 총책’을 보도한데 이어 ‘김미희, 정국 흔들 히든카드 될 듯’이라는 기사를 잇따라 내 보냈다. 서울신문은 이 기사

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사건을 수사중인 공안 당국이 이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김미희 의원(47)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국내 총책이라는 진술을 RO 내부 협력자로부터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미희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이날 조기사는 더 이상 인용되거나 보도되어서는 안된다”며 “일부 언론에 대해 그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겠다”고 밝혔다.

# 광주대단지사건 '폭동' 아닌 '생존권 투쟁'

## 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 좌담회 개최 공식적 조직 통해 연구·재조명 '시급'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동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건 당시 경찰의 발표에 따라 40년이 넘도록 '난동'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실제 광주대단지 사건은 3~6만 명이 참가한 시위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아 '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성남시의 탄생 배경이 됐던 8·10 광주대단지 사건 42주년을 맞아 '특별좌담회'를 마련, 김준기 소장(공동체사회연구소, 전 신구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광주대단지사건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과 이후 지속 가능한 사업회 구성 등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성남문화재단 하동근 문화진흥국장은 “성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현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40년이 지나도록 이를 규명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명확히 풀기위한 조직이 필요하고, 이후 담론보다는 공식화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건을 연구하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은 “진실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대한 논의는 덜 됐지만, 정신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연구 등을 위한 기념사업회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말았다”면서 “시의원들조차 시각 차이가 큰 만큼 설득, 공감을 거쳐 이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임미리 연구원은 “광주대단지사건의 생존권 투쟁 등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건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면서 “3~6만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고작 차량 3~4대, 경찰관 몇 명이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던 사건을 과연 '폭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임 연구원은 “최초 자료가 한국일보 기사였고, 이를 과장 보도한 탓에 지금까지 폭동 이미지가 덧씌워졌기에 이를 걷어내고 성남시사 등을 집필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전 의원은 “42년 전 사건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 지역갈등, 주거환경 등으로 남아 있기에 이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생존권 투쟁을 난동으로 규정한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 보상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동희 성남일보 대표는 “광주대단지사건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이벤트가 아닌, 지역의 올바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성남향토문화연구소 한동영 소장은 “광주대단지사건을 특정 지역에 한정 두지 말고,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도 짚고 넘어가야 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증언자들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이웃사랑 실천

###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성금 전달

폴리텍성남캠퍼스(학장 권영철) 교직원들은 추석을 앞둔 11일 수정구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식사 준비 및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대학 봉사단체인 반딧불이 회원 10여명은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해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다.



이만호 회장(금형디자인과 교수)은 “미미하게나마 어르신들을 위해 도움을 드린다는 게 기쁘고 뿌듯하다”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좀 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 무지개학교가 문을 엽니다

## 무지개학교 개교식 및 제1기 개강식

- 제1부 : 문화 공연
  - 난타 공연
  - 베트남 전통춤 공연
- 제2부 : 개교식 및 개강식
  - 내빈 소개
  - 인사말 - 신상진 상임대표
  - 교장 인사말 - 권오범 교장
  - 공동 대표단 소개
  - 학생 대표 인사
  - 축사

- 일 시 : 2013년 9월 29일(일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을지대학교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 주 최 : 산성복지포럼

지난 3월 4일 출범한 산성복지포럼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무지개학교를 엽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무지개학교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무지개학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교실,건강강좌, 역사 강의, 성남 정체성 찾기, 전통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산성복지포럼



#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 막말 파문 '증폭'

## 술 냄새 풍기며 주민대표에 '막말'... 성남주민연대, 해임 촉구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백종선 비서가 시장과 주민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또 다시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성남주민연대(공동대표 김태엽)는 지난달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민대표들에게 막말을 한 백종선 비서를 해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8월 7일 우리단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교이주단지 이주와 백현상가피해보상 문제 관련 공개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백종선 비서는 공원로확장공사 주민대책위 위원장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려는 시도를 시도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항의와 경고를 받은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또한 주민연대는 "(백종선 비서가)성남시장과 대표단의

면전에서 술 냄새와 더불어 언성을 높이며 폭언과 물리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면서 "주민대책위원장을 끌어 내리는 무례한 행위를 재차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밖으로 나와' 하며 시비를 걸고 '욕상에 올라가자'는 식의 양아치 버전으로 개싸움판(고성과 욕설이 오고가는)을 유도해 공개면담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의를 곡해하고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연속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주민연대는 또한 "시청을 방문했던 우리 단체 면담 참가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해야 했다"면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경력으로 당선되었던 시장의 면전에서 공무원인 비서가 시정잡배나 입에 담을 수 있

는 폭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뱉으며 물리력까지 서슴치 않고 행사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연대는 "백종선 비서의 시정잡배 수준의 난동사건은 성남주민연대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판단한다"면서 "백종선 비서의 성남주민연대 관련 일체의 업무 즉각 중단, 공개사과문 성남시청 홈페이지 게재"를 요구하며 오는 25일 '내만행 장례식' 이전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백종선 비서 해임 요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종선 비서는 "K모 위원장이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장을 욕보이는 것 같은 발언을 해 화가 나서 한 것"이라며 "주민연대를 욕보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재정 파탄, 김문수 지사 책임 촉구

## 민주당 경기도당, 기자회견 "1조5천억원 재정파탄 책임져야"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수정)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 재정 파탄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회전에서 김태년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 15조원 중 1조 5천억원 재정 파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도는 장기적 경제 불황 상황에서도 무분별한 산하기관 예산 지원, 홍보적사업, 예산돌려막기 등으로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오늘까지 어떤 자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파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군 자치단체



와 교육청등 다른 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탕으로 돌리기도 했다. 경기도 재정 파탄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도정 운영에 따른 것이

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재정 파탄 사태와 관련하여 도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를 통해 당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 전하진 의원, '애국가' 법적근거 마련

##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애국심 고취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지난 11일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國伎)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등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 하거나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률의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 애국가 제창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국가법'으로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 상징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성남시 의료원, 울트라건설 컨소시엄 선정

## 501병상 규모... 11월 착공, 2017년 준공

성남시 의료원 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5일 조달청으로부터 의료원의 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성남시 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입찰공고를 거쳐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관으로 5월 현장설명회, 8월 공동설명회와 기본설계 평가회를 거쳐 조달청에서 시공사로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됐다.

울트라건설 컨소시엄은 '치유환경을 선도하는 환자 중심 첨단의료원'을 목표로 병상수 501병상, 지하4층 지상9층, 건축면적 13,438.62㎡, 연면적 82,819.59㎡로 공사기간도 약 6개월을 단축할 예정으로 성남시 의료원

의 조기 개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성남시 의료원은 건축협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하고 2017년에 개원하게 된다.

성남시 의료원이 완공되면 50만 원도심 주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와 질 높은 공공보건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4년여 동안 공사인원의 50%를 성남시민으로 고용하고 내부 건설현장 식당을 제한하여 공사장 근로자들이 주변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임명

성남시가 지난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황무성 전 GS건설 부사장을 임명했다.

신임 황무성 사장은 연세대학교목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LG건설, 동부건설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30년이상 건설업계에 몸담은 전문 CEO 출신이다.

성남시는 "대형 건설사를 거치며 쌓아온 신임 황무성

사장의 오랜 노하우와 전문적 식견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단기간에 성공적인 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신문

# 주간 성남일보

발행·편집인: 모동희  
 등록일: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경기 다00907  
 홈페이지: www.snillbo.co.kr

발행처: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29-4 광장빌딩 505호  
 구독·광고 문의: 031-721-9922  
 메일: webmaster@snillb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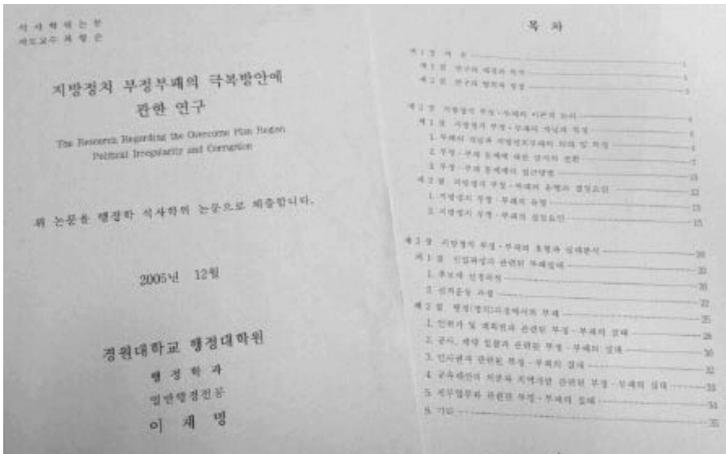
# 성남일보

snilbo.co.kr



##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 논문 표절 '논란'

### '미디어워치' 보도...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이 표절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는 14일 "‘중북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표절 논란’도 추가"라는 기사를 통해 '논문 검증 이래 최대 규모 연구부정 행위,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디어워치는 "13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www.skepticalleft.com>)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에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논문 검증 이

래 최대 규모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98%가 표절로 의심되며, 센터도 50% 이상의 표절이 확인되자 더 이상의 검증은 포기했을 정도로 그냥 통으로 베낀 수준의 논문"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 워치는 "연구진실성 검증센터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석사논문은 이 시장 본인이 논문작성 수업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더라면, 그리고 학문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논문"이라면서 "본문 76페이지 중 무려 40여페이지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된 점도 그렇거니와, 참고문헌을 정리한 방식이나 오타 오기의 양상으로 볼 때 대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워치는 "이재명 시장의 논문은 조운행 박사의 '공직 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김용철 교수의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형서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실태와 반부패정책', 윤태범 교수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역량의 강화와 시민단체(NGO)의 역할' 등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 있는 단락과 도표들을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가져와 본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대략 10여명의 논문에서 덩어리 형태로 글들을 마구 가져와 그냥 붙여넣기 한 짜깁기의 수고조차 거의 엿볼 수 없는 논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위터 등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전후 상황을 알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발전 중소기업인 '힘 받는다'

### 이자성 줌스메디컬 대표,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로 이자성 (주) 줌스메디컬 대표가 선정됐다. 또, '우수상' 수상자는 한승무 (주)비엠텍월드와이드 대표와 김영달 (주)영인기술 대표가, '장려상' 수상자는 송방호 (주)성호전자 대표와 염태호 (주)인스타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제5회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전 접수한 6개 업체별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기업의 건실도,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5명의 중소기업인 대표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대상 선정자 이자성(49)씨가 대표로 있는 (주) 줌스메디컬(중원구 상대원1동)은

디지털 및 외과수술용 엑스레이 촬영기를 생산하는 전문의료기기 제조기업이다.

이번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인 5명은 '제4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때 성남시장 표창을 받게 된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일본 도시바 메디칼시스템즈와 2011년 투자계약을 체결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매출액 351억원, 수출액 166억원을 달성해 지난해 지경부 주관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용인원이 2011년 123명에서 2012년 165명으로 증가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을 인정받았다.

## 모이자! 오는 26일 오후 5시 분당 야탑역광장 중북척결 국민행동 2차 성남시민대회

### 성남시민 단결하여 중북반역세력의 본거지라는 오명을 받고 성남의 명예를 지킵시다!

1. 중북세력 정당과 정책연대는 '중북공조'입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외에도 통진당의 비례대표 의원 1명과 지역구 의원 1명이 내란 음모 조직 RO의 조직원이라고 공개했다. 현역 의원이 혐의자라면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은 반역정당이고 반역자입니다.
2. 성남 중원의 김미희 의원은 RO와 관련된 '반역' 혐의자입니다. 김미희 관련혐의 RO는 북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김정일을 우두머리로 모시고 국회를 사회주의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북한과 합세하여 폭력혁명을 모의한 반국가 조직입니다. 김미희는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원직 유지 판결이 나와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김미희는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한다 따라서 애국시민들이 나서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김미희 추방 범 시민서명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3. 이재명 시장은 중북공조 진상을 밝히고 사죄해야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북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통해 당선되고 공동정부를 표방해온 이재명 시장은 중북숙주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하며 그간 중북세력들에게 제공한 나눔환경 등 특혜 의혹과 채용 실태를 밝히고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4. 성남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동단결로 중북척결에 나서야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침묵과 분열을 반성하고 애국시민행동 대열에 동참해야합니다. 행동하는 시민만이 자유를 지킵니다. 중북세력을 비호하거나 가까이 하면 낙선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뭉치면 승리합니다.

국민행동성남본부 / 자유민주국민운동 / 성남시민협  
문의: 010-5263-9908 최인식(국민행동성남본부장)